

#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찾은 스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곳 중 하나가 W 서울 위커힐이 후원하는 <신예 디자이너> 색션이었다. 남다른 감각과 완성도로 '홍행'을 주도한 8명의 작가와 작품을 만나보자.

## 강우림 작가의 '조각의자'

"조각하듯 정성 들어 모양을 만들고 특수 안료로 염색한 후 코팅해 만든 작품으로 불푸레나무를 썼다. 기계로는 구현할 수 없는 곡선과 디테일이 많아 수공예 작업이 많았다. 결합 과정에서 나뭇결까지 세심하게 맞춰 완성도를 높였다." 엉덩이와 발 받침대를 한 판으로 길게 빼 착석감이 뛰어나고, 목공예 아트처럼 보일 만큼 조형미도 탁월하다. 서랍장 등 다양한 가구를 선보인다. woorim1278@naver.com



## 전지혜 작가의 '패키지 아트'

"중고 포장지'에 사과나 애플 두 같은 과일을 수채화로 그려 넣고 이들 포장지를 재료 삼아 예코 백으로 만들었다. 백으로 들고 다니는 대신 액자에 끼워 회화 작품처럼 감상할 수도 있다. 친환경 제품이나 환경 보호 캠페인을 선보이는 기업과 협업해도 좋을 것 같다." 이크림 귀아슈를 사용해 향수와 화장품 용기에 다양한 이미지를 그려 넣은 작품도 있는데 아트 오브제로도 손색없다. blog.naver.com/dada8211



## 유지연 작가의 '수공예 카펫'

"코바늘뜨기로 부분 부분을 완성한 후 퀴트처럼 이어 붙여 완성했다. 카펫, 바구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카펫 모서리 한쪽에 막대 같은 거치대를 만들어 슬리퍼 등을 편하게 걸어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구 기능을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색과 회색을 주요 색감으로 사용하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원형 카펫, 두툼한 실로 만들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바구니 등도 눈에 띈다. www.junnne.com



## 양승진 작가의 'Blowing Stool'

"형형색색의 풍선을 불어 다리와 엉덩이 받침대를 만든 후 예폭시로 여덟 번 정도 반복해서 코팅하면 건강한 남자가 앉아도 끄떡없는 의자가 완성된다. 어릴 적 풍선을 갖고 놀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앉는 순간 평하고 터질 것 같은데 막상 앉으면 콘크리트로 만든 의자처럼 단단해 득직한 느낌이 든다. 흰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컬러로 만들었다. www.seungjinyang.com



## 이재혁 작가의 'Oaip'

아트 토이도, 램프도 되는 이 작품의 이름은 'Oaip'이다. 양평진 아기 몸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포인트. 저학년 자녀 방에 두어도 좋겠다. "소프트 비닐인 PVC를 사용했으며 25인치(63.5cm), 5인치(12.7cm) 등 다양한 높이를 만들었다. 갖을 썬우지 않고, 진구 모양 '얼굴'을 몸통에 연결한 작품도 있다." www.delftoys.com



## 여인철 작가의 'artiZAC 가구'

"적벽돌로 마감한 건축물을 좋아한다. 그 건물 안에 들여놓으면 좋은 가구를 고민하다 보니 색깔도 진하고 내구력도 좋은 호두나무를 주재료로 선택하게 됐다. 미세한 곡선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여인철 작가가 만든 브랜드 '아티작artiZAC'은 장인이 만든 작업물을 뜻한다고. www.artizac.com



## 박중호 작가의 '커넥션 문구'

마우스 패드 한쪽 끝에 미니 스탠드 거울을 붙이고, 연필통과 메모판, 클립 보관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등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보기에도 좋고, 여러 제품이 한곳에 있어 사용도 편리한 일식이조 제품. "그간 주로 가구 디자인을 선보이다 신작 개념으로 오피스 소품을 만들어왔다. 키워드는 '커넥션!'" www.dinndip.com



## 조늘해 작가의 '거꾸로 가구'

거꾸로 뒤집힌 형태의 의자와 조명, 사이드 테이블 작품. 조명은 불빛이 아래쪽에서 나오며, 의자는 높고 길게 뻗은 프레임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색상이 화사한 공간에 포인트 역할을 한다. "플루레나무에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친환경 밀크 페인트를 칠해 완성했다. 의자 프레임에는 옷이나 커튼을 걸 수 있다." www.neulhae.com



**"우리 목표는 디자인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

미셀리 W 서울 위커힐 브랜드 PR & 마케팅 팀장 수백 명의 디자이너 중 35명을 선택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나? 참신함과 디자인 완성도, 실현 가능성을 눈여겨봤다. 올해 컬러 코드인 '레드'를 입이나 화이트 시계 사용했는지도 확인했다. 과거나 지금의 유행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적 디자인을 보여준 작가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W 서울 위커힐 총지배인 그레그 핀들레이(Greg Findlay,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총괄 디렉터) 신승원, 스튜디오 사월 김제형 대표 등 총 5명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35명의 신진 디자이너에게 W 서울 위커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고, 하게 되나?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디자이너와 작품을 알리고 있다. 호텔에 있는 '더 스토어(the Store)'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디자인 축제나 행사 중 서울디자인페스티벌과 협업하는 이유는? 젊고 패기 있는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Up-Coming Designers> 색션은 잠재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디자인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W 호텔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아시아에서 모은 W 호텔 중 한 곳을 추천한다면? W 방콕,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 쇼핑 등을 즐기기에 좋다. 아외 수영장 '웨트 데크(Wet Deck)'와 최고급 스파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어웨이 스파 AWAY Spa'도 놓치지 말자. W 빌리도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글 정성란 기자